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65호 발행일 : 2004년 1월 4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송구영신예배 메시지]

보이지 않는 현실인 약속이 성취되는 새해가 되길...

2003년이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나가고, 2004년 새해가 밝았다. 문동학 목사는 2003년이 가기 몇 분전에 두 가지 기도제목을 성도들과 나누었다. 그것은 용서와 축복의 기도였다. 기도를 드리고 난 뒤 하나, 둘, 셋이라는 카운트다운에 맞춰 온 교인들이 '할렐루야'라는 고백과 함께 새롭게 맞이한 새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송구영신예배는 밤 11시부터 할렐루야 찬양팀과 새벽이슬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여, 한해를 돌아보는 영상 이후, 11시 30분부터 김성관 목사의 인도와 양동훈 장로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다. 문동학 목사는 이날 여호수아 1:1-9절 말씀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송구영신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은 문동학 목사의 송구영신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

2003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 우리나라에 있어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특정 세대와 특정 계층을 넘어 전 국민이 총체적으로 리더십의 부재와 정치 혼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겪었던 한 해였다. 이러한 오늘의 상황은 본문 속에서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잃고 모압 광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역사적 사명이 있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앞에서 힘 있게 이끌어

>> 2면에 계속

[교육위원회]

다음 세대준비하는 사람들 되길 다짐

지난주일에는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역자와 장로와 권사 및 집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아 새롭게 교회학교를 통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육 전임 교역자로 섬기는 김현령 전도사와 교육위원장으로 수고한 한윤경 장로의 기도로 진행되었다. 지난 한 해 영아부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드러나든 그렇지 않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해준 교육부서 교역자들과 장로 및 지도 권사와 부장 집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교회학교를 맡게 된 신임 부장 집사와 지도 권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



[신년목요모임 메시지]

당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는 새해가 되길..



2004년 1월 1일 새해 첫날 목요모임을 평상시처럼 저녁 7시에 중예배실에서 가졌다. 이번주에는 문동학 목사가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300여명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보고 새해를 주님 뜻 안에서 새롭게 계획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문동학 목사의 신년 메시지는 요한복음 7:37-39절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되었다. 그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요약해 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에서 배라는 말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한다. 새해는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당부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신년 신월에 해당하는 새해 첫 달에 행해지는 축제인 초막절을 맞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생수의 강은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성경 안에 나타난 이러한 성령 충만으로 인해 넘치는 생수의 강들로는 다음 8가지가 있다. 첫째, 경배와 찬양의 강(행 2:11), 둘째, 증거와 증언의 강(요 15:26), 셋째, 섬김과 사역의 강(막 16:17), 넷째, 은사의 강(고전 12), 다섯째, 중보기도와 간구의 강(롬 8:26-27), 여섯째, 열매의 강(갈 5:22-23), 일곱째, 방언과 예언의 강(고전 14:4), 여덟째, 계시의 강(엡 1:16-17)이다. 새해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이러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침으로 가정과 직장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의 강이 온 땅을 적시기를 간구했다.

이 날 모여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간구하고 고백한 모든 이들의 간절한 소원처럼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 안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기쁨으로 기대해본다.

성지순례단 11박12일의 일정으로 오늘 이집트로 출발



성지순례단은 2004년 새해를 맞아 1월 4일에 출국하여 15일까지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된다. 순례국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출애굽 여정을 따라)이다.

성지순례단의 인솔교역자는 이창현 목사, 총무는 장승수 집사, 회계는 이혜숙 집사이다. 성지순례단은 이창현 목사의 지도아래 작년 1학기부터 1년 동안 1학기에는 '나의 성지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2학기에는 '성경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성경에 관한 공부와 성서 지리에 관한 공부를 해왔다. 이제 오늘 그들이 성지순례를 떠난다. 성지순례에 참석하는 총 참가자는 34명으로 이중 부부는 7쌍이다. 성지순례단 참가자중에는 타교회 교인도 함께 한다.

우선 순례단 조를 편성했다. 1조의 조장은 이재현 집사로 배정인원은 10명, 간식류 운반을 맡게 된다. 2조의 조장은 이종복 집사로 인원은 12명, 라면운반을 하게 된다. 3조는 김영식 조장으로 인원은 11명, 의약품운반을 맡는다.

성지순례의 장소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즉 출애굽 여정을 밟게 된다. 경비는 개인당 총 2,500,000원으로 카타르항공(2등석), 숙박(1급, 2인1실), 관광

지 입장료, 가이드 비용, 대형버스, 공항세 및 관광기금, 테러보험료, 여행자보험, 비자비용, 기사와 가이드 팁, 진행비, 도화시티투어 등 포함가격으로 추가비용은 없다. 담당 여행사는 경남관광여행사이다.

그 동안 여러 준비사항이 있어왔다. 여권발급 등의 제반행정사항을 총무, 회계에게 문의하기, 힘든 여정이기에 하루 1시간 걷는 운동과 뛰는 운동을 필히 하기, 발에 맞는 운동화 혹은 캐주얼화를 미리 준비해서 발을 맞추어두기, 개인 약이나 건강상태 등 주변인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주의해주시기 등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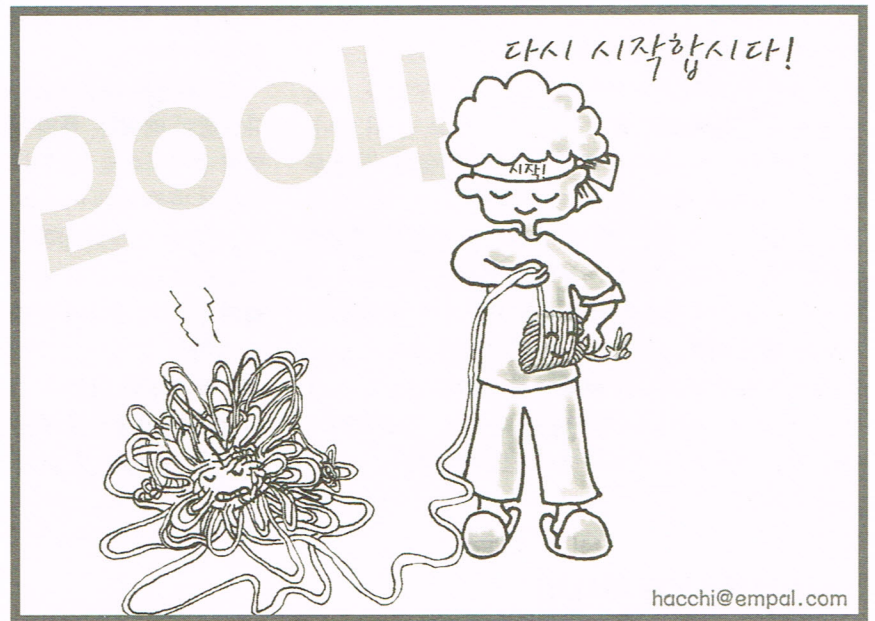
오늘부터 시작될 순례단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 시간으로 1월 4일 주일 21시 50분에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한다. 1월 5일 월요일 5시 30분 도하공항에 도착하여 전용버스나 밤기차를 타고 도하와 카이로를 지나게 된다. 6일 화요일은 룩소역에 도착하여 전용버스를 타고 룩소를 둘러 비행기를 타고 카이로에 도착하게 된다. 7일 수요일에는 카이로와 시내산을, 8일 목요일에는 시내산과 타바, 에일랏을 다니며, 9일 금요일에는 에일랏을 거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다. 11일까지 예루살렘을 순례한 뒤 당일 나사렛 티베리아스를 거친다. 12일 월요일은 티베리아스, 벳산, 암만등을 여정하며 13일 화요일에는 암만, 페트라, 마임을 돌게 된다. 14일 수요일에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마임을 거쳐 암만으로, 암만에서 도하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 도하에 도착하여 마지막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타 15일 목요일 17시 5분경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게 된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순례일정은 조정 될 수 있다.

이번 성지순례단은 주님의교회 15년사에 처음 기획되었다. 앞으로 2회, 3회 많은 연습과 훈련을 거쳐 또 다른 멤버들이 여정을 밟게 될 것이다. 첫 출발이 오직 은혜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며 주님의교회 교우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하여 같은 은혜가 충만하길 바란다.

송구영신예배 >> 1면에서 계속

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 때 새롭게 등장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본 문이다. 고난은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1-2절)이지만, 약속 역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한 현실(3-6절)임을 강조하면서, 새해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한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에는 우리의 책임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다(7-8절). 이러한 삶을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동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9절).

송구영신예배 한 시간 전부터 여러 명의 장로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권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기쁜 얼굴로 맞아주었고, 주차 안내부와 봉사부원들은 주차와 커피 봉사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한다. 새해에는 우리나라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좋은책읽기모임]

잔느 귀용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주님의교회 좋은책읽기 모임이 2003년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교회수련실에서 있었다. 함께 나눈 책은 잔느 귀용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였다. 분주하고 외향적으로 치달기 쉬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우리는 거의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심각한 왜곡과 자기 기만과 오류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다. 자신의 실상을 외면하고 아니면 문제를 덮어버리고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럴 듯하게 포장하

고 위선과 가식이 이제는 체질화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하여 기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잔느 귀용은 1648년 프랑스 루이 14세 때 부유한 귀족가에서 태어나 그녀의 일생은 거의 끊임없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1717년 69세로 죽기까지 주님에 대한 헌신적 사랑으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한 영성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책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는 마음보다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려는 마음이 더 간절하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려는 마음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려는 마음이 더 뜨겁기 때문인데

그 방법은 숨쉬는 것보다 쉽고 자연스러운 것, 바로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존재인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의 존재양식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교우들 모두 읽어보시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풍성한 기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생애에 주시는 진정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길 바란다.

성탄주간 나눔으로 온누리를 훈훈하게



날마다 축복의 별들은 성탄을 통하여 쏟아지건만, 날마다 넘실대는 성령의 파도는 우리 마음에 밀려오 건만, 태풍 매미의 후유증과 청년실업자의 증가, 이라크의 피의 보복, 이란의 대지진 참사 그리고 오리와 닭에 이은 광우병 재해등 2003년 연말은 왜 이리 가슴 아프기만 한지. 그러나 이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분들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다. 목사님의 특별광고를 통하여 12월 21일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나눔의 물품들을 모았다. 그래서 28박스가 모였다. 복지선교부에서 나눔의 물품 접수한 이래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한다.

11월~12월 복지 선교부원들이 지역을 분배, 바쁜 중에도 틈틈이 후원단체를 방문했다. 방문하여 복지 시설 현황을 파악 자료(File)화 하고, 수용인들과 함께 하며 필요를 조사했다. 예년과 달리 겨울옷과 물품이 많이 필요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내어 주신 물품들은 성탄선물

로 손색이 없는 정성스런 물품들이었다. 서울근교 무지개 동산 재활원(장애인) / 소망의 집(박약아) / 강남 병원(행려병자)은 직접 전달하였고, 공향동 살림의 집(장애인) / 영월군 예가원(노인시설) / 마산 미자립 교회는 택배로 발송했다. 그리고 군산 신광모자원과 소년 가장을 돕는 곳은 21일 당일 필요물품을 가져갔다. 정릉 세계 십자가 선교회(마약,알콜중독)에서는 직접 차량을 가지고 와 수령하여 갔다. 태백 황지 중앙 교회(탄광촌)에서도 직접 수령하여 갔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님의 교회 성도들 덕분에 추위를 견디게 되었다고 고마워했다. 이런 도움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추위에 떨던지 아니면 옷을 사고 먹을 것을 줄이든지, 도움의 손길이 유난히 적은 올해라고 한다. 눈물이 글썽하던 이들을 보니 안타까움이 눈앞에 아른 아른 거린다.

욕심 같아선 매월 이만큼(30박스)이 나와 지금도 애타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에게 주님의교회의 이웃사랑의 실천(구제와 선교)이 어두움을 밝히는 별처럼 쏟아지고, 성령의 감동감화의 파도가 계속 계속 밀려왔으면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닐까?

특히 1월에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베다니 마을(무의탁 노인/장애인/이혼노인/고아 수용시설)에 주님의교회의 따뜻한 손길이 한번 더 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동참하여 주신 성도분들에게,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신 복지선교부 들에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충길 집사

(장로간중)

언어사용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운전이 인격이듯 말도 인격입니다. 따라서 깊이 사귀어 보지 않아도 말투로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즐겨 말하지는 않는지, 은근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는 않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떠도는 말을 마치 사실인양 전하지는 않는지, 생각 없이 조금씩 말하지는 않는지, 이해 당사자의 한쪽 말만 듣고 선불리 판단하거나 예단하지는 않는지, 상황에 따라 망설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지, 평소 사용하는 어휘가 거칠지는 않는지, 상대에 따라 예의를 갖추어 교양 있게 말하는지 등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말투도 당연히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도 그렇고 특히 교회 안에서 빛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도 대부분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소한 한마디의 말실수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5:48).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완전할 수 있지만 피조물인 인간들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지만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약 3:2).

그러면 어떻게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 많은 집은 장 맛도 쓰다,” “말은 할수록 거칠어지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진다”는 말이 있고, 성경에서도 “말 수가 적으면 미련한 자라도 슬기롭게 보일 수 있으니”(잠 17:28) 말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은 자유의지로 하는 말들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함이었습니 다. 그러나 태초의 인간들은 그러한 말을 하는 대신 거짓말과 핑계 또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을 함으로써 언어만 혼잡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나의 언어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의 실수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무익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판 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무익한 말에 대해 반드시 심문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의롭다고 인정하거나 정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12:36-37).

소망의 한해를 다시 맞았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 말의 실수를 줄이고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두 번 이상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들여 은쟁반에 금사와 같은 말만 함으로써 완전한 사람을 지향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은 2004년 1월 신앙계에 실린 원고입니다.)

최창섭 장로



[영아부 진급식]

영아부에서 유아부로 한 걸음

2003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에 생후 24개월이 지난 영아부 보배 15명이 유아부로의 진급식이 있었다. 매년 이맘때면 정들었던 아이들과 헤어짐이 서운하여 그저 껴안고 볼을 비비며 떨어지지 못해 아쉬워 하지만 보람은 매번 더 큰 것 같다.

뽀송뽀송한 얼굴로 젖내 풍기며 포대기에 안겨서 영아부 문을 두드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한주 한주 날이 감에 앉고 기고 걷는 과정을 거치며 찬양과 율동에 흥겨워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야기 설교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도 하는 단계별 몸이 자라나는 만큼 지혜도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실로 하나님께서 귀한 목적이 있어 창조하신 영혼 한 영혼을 이토록 귀히 여기시며 키워가는 과정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영아부 교사가 아

니고는 맛 볼 수 없는 행복함이라 생각한다.

티 없이 맑고 곱고 순수한 아이들 모두가 예수님 사랑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 이 세상의 화평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귀한 예수님의 보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새해 첫 주가 되면 유아부로 진급한 어린이들의 자리를 채워줄 순백의 어여쁜 영혼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백지 같은 이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사역을 담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귀한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곱고 순전하고 사랑 충만한 주님의 사람으로 가꾸어가는데 부지런하기를 영아부 교사 모두는 오늘도 다짐해 본다.

김향순 교사

{교회소식}

1. 2004년 교육부 예배 신설

주일 2부예배시(오전 9시 30분) 통합유아부가 신설되어 취학전 유아와 기존 유아 1부를 맡게 되며, 유아부실(1층)에서, 또한 통합아동부는 1-6학년 어린이 대상으로 3월부터 유년부실(1층)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요성경공부시에도 탁아부가 3월부터 신설됩니다. 교우들의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2. 목요모임 안내

매주 목요일 7시에 중예배실에서 목요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40대 직장인들과 청년들뿐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하기 원하는 장년 성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제직수련회

제직수련회가 1월 11일(주일)~12일(월) 이틀간 있을 예정입니다. 새해 제직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리더훈련 반 방학 및 개강 안내

리더훈련반 방학: 2004년 1월 9일(금)까지
개강: 2004년 1월 11일(주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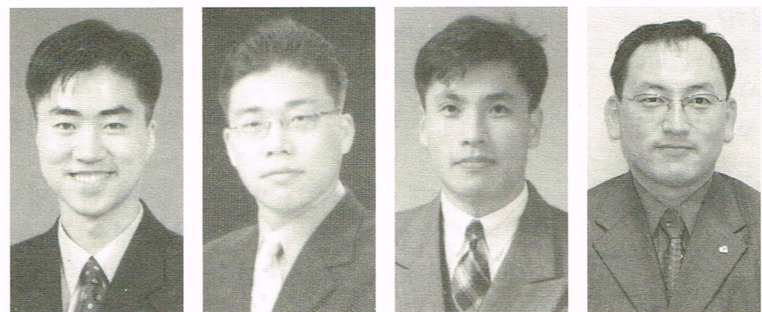
5. 2004년 교회학교 교사 모집

2004년 교회학교를 섬길 교사들의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합니다.

[목회자동정]

신임교역자 부임

주님의교회를 섬길 4분의 신임교역자가 1월 1일부로 부임했다. 사진의 왼쪽부터 이 호 목사, 정영환 목사, 우동운 목사, 윤은성 목사이다. 앞의 3분목사는 교구 및 위원회사역을 맡게 되며, 윤은성목사는 청년부를 맡게 된다. 신임교역자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길 기대한다.



(자원봉사연결박람회)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자리에서 봉사자로 서길...

지난주일 교회 1층 로비에서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내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부서와 사역팀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을 연결하는 사역 박람회가 있었다.

예배부, 안내부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교회학교 부서와 해외선교지원부, 몽골선교팀, 도시개척교회사역부, 군부대교회사역부, 그리고 환경부와 119사역팀, 영상미디어부와 찬양대, 그리고 결혼예식팀과 새가족반, 중보기도사역팀등 수많은 교회 안의 부서와 팀들이 각 위원회별로 부스를 만들고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성도들에게 사역을 소개하고 봉사 시간과 여건을 조정하는 기회를 가졌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번 사역 박람회를 통해 새해에는 적어도 한 성도가 한 봉사부서나 사역팀에 참여하여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헌신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통합아동부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3.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4.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6.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